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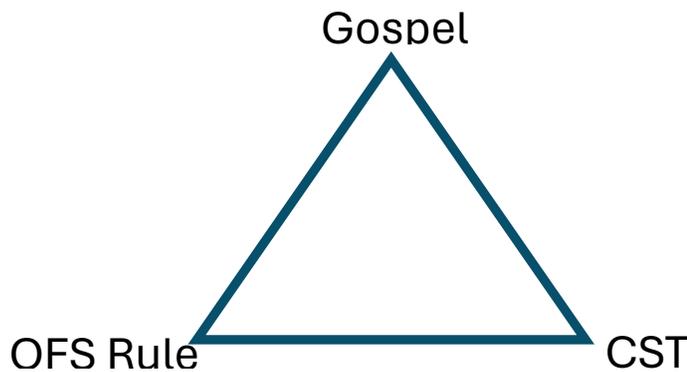
금요 양성 April 12, 2024

단위 형제회와 나누시오

JPIC - 정의, 평화, 창조 질서 보존 (회칙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5월에 재개함)

이 글을 제공해주신 Joe Markely (OFS, 국가 정의, 평화, 창조 질서 보존 위원회 간사)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재속 프란치스코회원들은 교회안에서의 평신도로서 특별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자기 고유의 방법대로, 그러면서도 회칙의 범위안에서, 때때로 CST라고 불리는 가톨릭 사회 교리의 가르침에 맞추어,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가톨릭 사회 교리안에서 교회는 각 연령과 세대에 맞게끔 세상을 위해 복음을 펼쳐 보여줍니다. 우리는 적어도 공적인 생활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일부를 잘 숙지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1일자 금요 양성도 참조)



JPIC 안내서는 (국가 형제회 웹 사이트에 있음), 삼각형을 이용하여 복음, 회칙과 가톨릭 사회 교리의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회칙과 교회의 교리 문서들은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것들은 복음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칙 (15조 참조)은 바오로 6세의 평신도 사도직 교령, *APOSTOLICAM ACTUOSITATEM*, 특히 그 교령의 14 항에 있는 문장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애국심과 시민의 의무를 충실히 지키면서 가톨릭신자들은 스스로 참된 공동선 증진의 의무를 지고 있음을 자각하고 그들의 무게있는 의견을 발효시켜 행정권(行政權)이 의롭게 행사되고 법률은 윤리도덕과 공동선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이나 여러 사람과의 토론을 위해, 또는 저널에 의견 쓰기

질문 1. 공적인 사안에 대해 나의 견해를 나눌 경우에 그것들이 가톨릭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한가지 예를 드시오)

질문 2. 나의 재속 프란치스칸 형제 자매들이 내가 정의를 위해 용기있게 일하고 있다고 말할수 있을까요? (그들이 나의 노력을 어떻게 기술할까요?)

질문 3. 배우자나 가까운 친구가 공공 정책에 대한 나의 견해가 가톨릭 교리와 일치한다고 말해 줄수 있을까요? (예를 들으시오)

도전: 기도를 하면서 위의 문장과 참조 문장 회칙 15조를 묵상해 보시오. 참여해본 적이 없었던 사안에 대해 공부해서 정의의 편에 서서 용기있는 입장을 취해 보겠다는 목표를 세워보시오. (형제회안에서 나눔을 한다면, 형제회에 보고해 보시오)